

2016년도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작품선정 심의
- 회의일시 : 2016. 10. 6(목) 11: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3층, 세미나 1실

2016년도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접수 작품은 총41작품으로, 초연부문 27작품, 재연부문 14작품이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및 창의성(90%),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및 지원 후 기대효과(10%)에 두었다.

또한, 우리 창작음악의 해외진출에 있어 현지의 수요가 많은 국악기 협연, 창작곡 스펙트럼 확대를 위한 현악기 협주곡을 우대사항으로 염두에 두었다.

먼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젊은 작곡가부터 중견 작곡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지원자의 지원신청과 정성을 다한 악보에 감사와 감동의 마음을 전한다. 세련된 관현악법 능력을 지닌 신진 작곡가들이 여럿 눈에 띄어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음악적 아이디어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것이 있으나 표현이 소극적인 작품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특히 Tempo의 변화가 없이 음의 나열처럼 보이는, 혹은 작곡 기법의 나열처럼 보이는 작품도 있다. 관현악 작품은 작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Orchestration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각 악기의 특징과 전체 악기의 조화를 인지하길 바란다.

그리고 기보법에 소홀하여 타인이 볼 때 제대로 의도를 알기 어려운 작품, 재연 곡임에도 불구하고 악보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는 작품들이 있어 안타까웠다. 앞으로 이점을 밑거름 삼아 더욱 훌륭하고 작품성을 갖춘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 많이 공모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기존 아창제를 포함해 이번 공모에 참여해주신 여러 작곡가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올해 11월과 내년 1월 아창제 각 부문별 기획연주회장에 와서 선정된 곡을 들어봤으면 하는 점이다.

우리 심의위원 모두는 아창제가 1,2,3 등수 순으로 작품을 선정하는 기존 작곡 콩쿠르와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창작음악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다양한 작품을 작곡하고 있는가를 연주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취지를 무엇보다 작곡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었으면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지만, 적어도 1년 365일 중 단 이틀만이라도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 제자고, 어떤 모임을 하고 있는지가 아닌, 그 음악은 어떤 점이 좋았고, 색다른 시도는 무엇이었는지를 놓고 뜨겁게 논쟁하고 비평하는 시간으로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8회 ARKO한국창작음악제 양악부문 심의위원 일동